

2023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7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3. 10. 31.(화) 10:00 ~ 12:15
- 장소 : 문화본부 대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4층)

한국 컴퓨터 속 기사 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 ◆ 일시 : 2023. 10. 31.(화) 10:00 ~ 12:15
- ◆ 장소 : 문화본부 대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4층)
- ◆ 참석자 : 건축문화재분과 위원 6인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문화재정책과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

### ◆ 심의안건 (총 6건)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4건)
  - ① [성북동 이종석 별장] 안채 및 행랑채 보수 공사
  - ② [봉은사 선불당 / 판전] 야간경관 조명 설치
  - ③ [만리동 정영국 가옥] 용도변경에 따른 보수 공사 <재심>
  - ④ [원구단 정문] 철제펜스 철거 및 CCTV 추가설치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등(1건)
  - ⑤ [광통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남대문로 1가 20)
- 문화재 긴급보수 및 현상변경(1건)
  - ⑥ [경희궁 송정전] 지붕 일부 보수

(개의)

### ○ 000 과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건축분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000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 ○ 000 위원

반갑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과장

오늘 안건은 총 6건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청이 좀 늦게 와서 5번 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 '가' 업체1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대문로1가 20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상변경 심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상변경 개요부터 건축계획 순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 개요입니다. 광통관 주변에 도시미관에 스카이라인을 저해하는 낙후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서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의 존중과 가로의 경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연면적은 796㎡ 정도 되고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에 약 36m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변경 전 시뮬레이션 모습입니다. 조감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광통관이 되겠고 주변에는 높은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면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모습이 됩니다.

문화재 개요입니다. 문화재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9호로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입니다. 저희 대상지가 여기 광통관이고요. 저희 대상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구역은 보존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남대문로 대로변으로서 인근 건축물들이 대부분 고층 건축물들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신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종각역과 을지로입구역 중앙에 광통관이 있고 사업 대상지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관통관이고요. 바로 옆에 큰 빌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뒤쪽으로, 양 옆쪽으로도 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현재 대상 건축물이 응접해서 낙후된 저층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이고요. 소단위 관리지구여서 인구 대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어떤 기준을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 높이계획 체계 개선에 근거하여서 높이 완화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녹지 등 공공공간을 확보한다거나 역사 및 지



역 특성을 강화한다거나 경제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를 도입한다거나 저층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서 높이 완화를 해 주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제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로써 청년창업을 위한 저비용 임대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층부 활성화 및 공공공간 확보를 위해서 개방적인 외관으로 시각적 접근성을 높여주고 저층부 활성을 위해서 지정용도는 근린생활시설물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부도 이 부분은 공공에 기여하는 공지를 조성해서 근처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건축계획 개념입니다. 현자 114년이 넘은 광통관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디자인의 용도를 그런 콘셉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담장의 패턴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요. 건물 자체가 하나는 은은한 조명의 역할을 하여 과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문화재와 어울리는 우아한 인지성을 부여하고자 반투명 유리블럭을 정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높이 변경 전의 모습입니다. 광통관의 모습이고요.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들의 모습이고 저희 대상지의 모습입니다. 인근에 저층 건물들이 노후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대로의 시뮬레이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의 양각선을 표현한 것이고요.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이런 스킨으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신축하게 된다면 광통관과 약 7m 정도의 대지경계에서 이격거리가 되고 있고요. 한 2m 정도가 더 이격이 되어 9m 정도 이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단면도입니다. 저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하2층 평면도입니다. 위층 평면도에 저층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건축 평면도입니다. 정면도입니다. 우아한 인지성을 주고자 하였고요. 좌측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000 위원

높이 완화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따라서 저 높이를 만드셨는데요. 이게 문화재 보존 구역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가' 업체1

그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해서 이 심의가 통과된다면 다시 건축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 000 위원

두 번째는 저층부 활성화 및 공공공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완화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 '가' 업체1

사실 지금 건축계획상으로는 저층부 일부분을 전용면적으로 다 채우지 않고 공용공간, 그러니까 공개공지의 성격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상지가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도 좀 있고요. 우천시라든가 기상악화시에는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 000 위원

인센티브로 받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을 위한 저비용 임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체크를 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계획인가요?

○ '가' 업체1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이런 사업계획서에 부분들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도입 후 용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그 이후로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 '가' 업체1

일단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말씀하는 부분들도 관할구청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



업계획을 준수하여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장

1층 단면도 있습니까? 1층 층고가 얼마죠?

○ '가' 업체1

3.6m입니다.

○ 000 위원장

3.6m면 저층부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가' 업체1

사실 대상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건축주들이 옆의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실 의향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 심의가 통과된다면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1층 부분에 대한 공개공지의 성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 돼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통과되면 이거로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굳어지는 거죠?

○ '가' 업체1

주변에 낙후된 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1층을 공개공지로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1층의 층고가 다른 층 층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별로 탁 트인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

○ '가' 업체1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보안을 해서 6m까지 확보를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6m로 된 도면을 갖고 오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그거는 안 되죠. 이 심의해 주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 000 위원

높이 완화 인센티브에서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인데 녹지에 대한 것은 거의 고려를 하지는 않았네요. 옆에 인접 건물들도 녹지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가’ 업체1

대상지가 협소한 제약이 있어서요. 사실 옥상에 정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층부는 아주 간단하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유도하는, 커피숍 정도의 용도만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부문의 성격이 들어간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 000 위원

매입에 대한 전제조건 말고 협정이라는 개발방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셨어요?

○ ‘가’ 업체1

네. 그것도 인접 건축물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여기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주변의 낙후된 것들과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인접 건축물 소유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가상을 얘기하시니까.

○ 000 위원



저희는 지금 문화재 위원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광통관과 이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배치도라든지 입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지금 광통관 앞에 약간의 녹지가 있는데 그것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입면 재료로 반투명 유리블록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옆에 광통관하고도 이질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광통관을 고려하신 계획안이 이 빌딩에 반영이 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가' 업체1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광통관에 대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단순한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건물의 특정 과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한 유리블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광통관을 비추는 라이프박스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광통관의 인지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고,

○ 000 위원

단면적으로, 죄송합니다. 다 하신 줄 알고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 '가' 업체1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들이 이 건물에 있어서 광통관의 경관조명과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 000 위원

지하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요? 안 나오네. 아까 도면에 있기는 했어요.

○ '가' 업체1

7m 정도입니다.

○ 000 위원

여기가 지금 7.2?





○ '가' 업체1

예.

○ 000 위원

여기는 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이에. 그러면 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가' 업체1

이것은 흠막이공법을 적용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흠막이공법은 추후에,

○ 000 위원

지금 설계하시는 분이시죠?

○ '가' 업체1

예.

○ 000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정하실 거예요?

○ '가' 업체1

CIP라는,

○ 000 위원

그게 들어와 있어야 해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금이 가거나 이런 것이 없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 '가' 업체1

굴토 시에 일반적으로 흠막이공법 CIP공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주변 건축물에다가 계측기를 부착합니다. 건물의 금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9/67



○ 000 위원

이쪽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어디다 해야 하고 지금 여긴 일부분 금이 가있어요.

○ ‘가’ 업체1

광통관뿐만이 아니라 흠막이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도심지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문화재 주변에는 계측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관리를 합니다.

○ 000 위원

중구에서 오신 거죠?

○ 중구청 주무관

예.

○ 000 위원

아직 굴뚝 있어요?

○ 중구청 주무관

굴뚝이요? 예.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 000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해요. 이것은 여기서 조금만 흔들려도 굴뚝은 금이 더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 ‘가’ 업체1

보완을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사오석 담장하고 광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가’ 업체1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이건 디자인의 모티브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리블록으로 격자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의 담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 000 위원장

제 질문은 광통관하고 사오석 담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 ‘가’ 업체1

그러니까 광통관은 근대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오석 담장은 전통 담장인데 문화재 하나의 축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문화재 근처에 있는 건축물에 어떻게 과하지 않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 담장의 모습과 디자인을 차용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장

심하게 이야기하면 문화재는 초가집도 있는데요.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나가시면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 업체 퇴장)

○ 000 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주시죠.

왼편에 있는 건물은 언제 건축됐나요? 광통관이 2002년에 지정됐잖아요.

건물이 2002년 전인지 후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000 과장

저는 전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그건 다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가 아닐 때 한 거죠?

○ 000 주무관

예.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11/67



- 000 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 000 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선후관계를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000 위원  
사실 광통관 후면에 주차장도 상태는 좋지 않아요.
- 000 위원장  
우선 평면이나 단면계획을 보니까 전혀 문화재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말 잔치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옆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이게 지정되기 전 건물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000 위원  
리모델링이 2018년도에 했던 것만 나오고, 데이빌딩이라고 그러던데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네요.
- 000 위원장  
리모델링을 2018년도에 했으면 훨씬 전에 지었겠죠.
- 000 위원  
높이 계획 체계개선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부 미비한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 그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따지는 거고 광통관이 있는데 제가 보는 데는 저층부 계획이 크리티



컬할 것 같아요. 특히 1층을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문화재를 키워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층도 보니까 3.6m로 저렇게 한 것은 높이가 똑같아요.

○ 000 위원

1970년 12월에 준공했다고.

○ 000 위원장

오래된 거네요.

○ 000 위원

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 것만 보면 되니까. 저도 아까 왼쪽 건물 때문에 리모델링을 근래에 했기 때문에.

○ 000 위원장

기존 건물이 4층 정도 되나요?

○ 000 과장

예. 기존 4층 건물입니다.

○ 000 위원장

4층인데 10층으로 높이는 거죠?

○ 000 과장

예.

○ 000 위원

경관에 어울리지도 않고 야간에도 너무 빛이 강해서 그럴 것 같고.

○ 000 위원장

난데없이 사오석 담장은 왜 갖다 붙였는지, 벽돌을 갖다 붙이지.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13/67



문화재라고 하면 무조건.

○ 000 위원

맥락도 안 맞네요.

○ 000 위원장

이걸 카테고리 어디로 넣을까요? 보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려를 해야 하나요? 그것부터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면 반려인가요? 어떻게 해야 해요?  
부결인가요? 부결.

○ 000 위원

이 도면으로는 전혀 안 될 거고.

○ 000 과장

부결을 했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되죠?

○ 000 주무관

나중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전면수정을 하셔야 하고.

○ 000 과장

부결할 경우에 전면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예. 보류는 저희가 조건을 주면 조건만 이행하면 재심의를 통해서 보류는 그렇게 가능하고요. 부결은,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14/67



지난해에 이 정도에 옆에 사이드 건물에 저 정도 높이에 경관도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대부분 부결로 하셨죠.

○ 000 위원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부결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왼쪽 것이 1970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도,

○ 000 위원장

그거는 자기들이 조사하면 알겠죠.

○ 000 위원

여기 써놓은 것은 옆에는 다 높은데 이걸 왜 아니냐, 그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 000 위원장

그건 자기들이 알아보면 되지, 굳이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 000 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면 되죠.

○ 000 과장

다음 안건입니다. 2번 봉은사 선불당 건입니다. 참고로 성북 건은 맨 마지막에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맨 뒤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봉은사 선불당 건입니다.

○ '나' 업체1

봉은사 야광경관조명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야광경관조성에 대한 여건분석을 말씀드리고 실행계획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은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해있는 통일신라 원성왕 10년 794년도에 연회국사에 의해서 창건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 000 위원

그거 우리 다 알아요.

○ '나' 업체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은사와 봉은사 주변의 산책로를 포함한 현재 봉은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야간경관을 디자인하고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과업기간은 12월까지, 소요사업비는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3억 6,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가장 핫한 도시 서울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높은 빌딩이라든가 코엑스, 아파트 주거단지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고즈넉하게 혼자 도시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몇 번을 낮하고 밤에 찾아가 봤는데 정말 신비하리만치 바깥의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심지어 야간에는 그 많은 도시숲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어두컴컴한 지역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은사의 주요 연표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가 봉은사 경내에 있는 사찰 문화재 부분 조명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히 진행되는 부분은 경내를 포함하고 있는 봉은역사공원에 대한 조도개선에 대한 조명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스님들,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조차도 역사공원이나 경내를 돌아다니실 때 빛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셔서 봉은역사공원을 포함하여 경내에 간단하게 경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은사라는 곳이 도심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관광지에 준하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오픈된 시간까지도 거의 조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과업의 목표는 야간조명으로 결과적으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나 주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을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은사의 야간경관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여건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서울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에 준해서 설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빗공해 방지법과 하부 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준수하였으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있는 특히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조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봉은사의 위치 부분입니다. 봉은사는 현재 25m의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여문을 지나서 법왕루까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약간의 조명 그런데 사실은 고정된 조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으로 반딧불 조명을 사용을 하신다든가 현재는 폐기되고 철거를 해야 하는 노후화된 지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 약간의 입구 쪽에만 불라드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산재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구불구불한 산책로 길에 조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현재 지장전나 이런 곳에 기반석 위에 약간의 기존에 방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다 파손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사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타 다른 사용이 가능한 곳에는 내부 불빛이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몇 군데에서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바깥에다 벽등이라든가 노출되는 투광등 같은 것들을 임의로 설치를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은사에 문화재가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문화재를 확보하고는 있는데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판전과 선불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봉은사의 야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모습입니다. 이 곳에 30m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컷오프형의 보안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 여기에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산책로에 전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계단 부분이라든가 실제 사람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수목에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님들이 무섭다고 말씀하실 정도



의 어두운 상황이라서 솔직히 저희가 야간에 현황분석을 하러 갈 때조차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느낌을 전달받았습니다. 봉은사 경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아마 스님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규칙하게 노출투광기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하셨다든가 그다음에 벽등 같은 것들을 바깥에 더러 다셨더라고요. 전혀 건축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빛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아예 빛이 없어서 밤에는 칠흑같이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나오는 빛의 간격 때문에 음영대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청이라든가 건물의 형태를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황분석을 통해서 실제 실행 진행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치도입니다.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일단 역사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둘레길처럼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황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블라드를 8m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륵불상이 있는 광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은사 측에서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수목 부분에 배경이 되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들에는 담장을 타고 라인등을 주로 설치했구요. 그다음에 시설물들에는 이것은 판전은 특히나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않았고 단전등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조명 지중등을 조금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들이나 이런 데 조도 확보를 위해서 블라드 같은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에는 대체적으로 앞쪽이나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곳에 지중등을 설치해서 지장전이라든가 선불당에 외곽을 조명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전등까지만 단청 같은 곳에만 빛이 비추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뒤에서 다시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라인바를 설치해서 담장 월위시 정도로 조명을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불교음악원, 요사채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템플스테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문화재와는 상관 없는 부분들에만 조심스럽게 조명을 적용했습



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중등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변으로 수목등을 사용했습니다. 지중등에 대한 설치계획입니다. 지중등은 보통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단석 위쪽에다 보통 지중등을 설치하는 것들이 많은 예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는 다 하부 땅부분에다 지중등을 설치했습니다. 5m 내지 6m를 설치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60도 각도의 렌즈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외벽과 단청 부분까지, 처마까지만 비추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물에 지중등은 다 외부, 기단석 바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기단석 바깥으로 설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단석을 타고 조명까지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배선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아래쪽, 하부 흙쪽에다가 지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래헌 쪽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차량들도 여기까지는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는 낮은 담장이 있어서 이 부분 업라이팅 할 수 있는 지중투광바를 설치했습니다. 추후에 설치 시에는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불량이 되지 않도록 실행할 예정입니다. 라인바는 아까 말씀드린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곳들이라든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에는 이렇게 처마밑에 월위시 방법으로 라인바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조명은 산책로에 들어가 있는 블라드하고 수목투사등입니다. 오래된 나무와, 특히 키 큰 소나무 등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춰줌으로써 전체 주변이 조금 밝기가 보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출되는 부분에 투광등은 그루터기 모양의 하우징으로 사용해서 이질감이 없도록 표현하고자 했고요.

산책로 부분에 블라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조명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가장 심플한 형태의 블라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걸 앞에서 말씀드린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크게 보시면 노란 불빛이 거의 대부분 수목투사등입니다. 이쪽에 수목들이 명상의 길 산책로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는 수목투사를 해서 수목을 밝힘으로써 주변 조도에 영향을 주게끔 했고요. 산책로 부분에는 블라드를 배치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계단 부분을 타고 블라드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주간에도 현재 아무런 조명이 없는 상태이고요. 야간에도 흑색처럼 까맣게 보이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드만 적용한 산책로 부분의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내 부분입니다. 경내는 계단이라든가 경사로 부분에 일부 블라드를 설치했고요. 대부분의 조명은 수목투사등이라든가 아니면 사찰 등의 건물에 앞뒤로 놓여진 초록색이 전부 다 지중등입니다. 이 정도로 경내는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단석이 아니라 하부에다가 지중등을 설치해서 각도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중등을 설치해서 벽면과 단청 부분까지만 비추도록 조명 계획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부에서 업라이팅한 이미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투광바를 설치해서 업라이팅 한 결과고요.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벽면에 처마 있는 부분까지만 조명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건물에다가 라인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깥에서 떨어트려서 지중투광하는 방식고요로 조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기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색 있는 것들은 조명 보완등을 약간 연꽃 모양을 적용해서 사찰의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출되어 있는 투광이나 이런 것들에는 나무모양의 그루터기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투광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높은 규격의 투광등들은 키 큰, 10m 이상되는 나무에 일부 적용하였고요. 낮은 조명 같은 경우에는 5와트의 낮은 조명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수목투사등에 대한 추가된 조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찰에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면 지중등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36와트와 25와트를 적용해서 지중등 매입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조명 기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붙는 조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스테이라든가 체험관 위주로만 적용하였고 이것도 바깥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우징으로 싸서 덕트와 함께 조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는 자재 부분이 2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공사비 포함해서 3억 6,000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20/67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 000 위원

선불당은 왜 배면하고 측면에 라이트를 해놨죠?

○ '나' 업체1

선불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선불당은 이 앞에 대응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대부분 법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해우소를 통해서 산책로 길로 해서 이 사잇길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000 위원

화장실 쪽으로 가세요?

○ '나' 업체1

예. 거기에서 보이는 부분에 조명을 적용하였습니다.

○ 000 위원

28, 29, 30에 있는 도면이 어느 건물 도면이에요?

○ '나' 업체1

이 건물은 저희가 사실은 봉은사 건물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저희가 예시로 기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 000 위원

봉은사는 되게 많이 심의 들어왔어요. 도면이 엄청 많은데요.

○ 000 위원

판전도 도면이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21/67



도면을 구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도면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 '나' 업체1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스님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말씀을 못 들어서요.

○ '나' 업체2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대략적인 그 건축물에 대한 조명 투광방식을 두 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면에는 봤을 때는 처마에 단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 000 위원

저희는 문화재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판전하고 선불당을 주로 봐야 하는데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판전도 사이드에는 라이팅을 하지 않는데 라이팅이 된 것처럼 시뮬레이션에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고 아까 선불당도 선불당이 대응전하고 거의, 이게 선종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배면하고 측면에 라이트를 때려서 마치 결다리 건물처럼, 이 절은 선종이에요. 선불당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인데요. 전혀 이 절에 대한 스터디가 없이 사람 동선만 갖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동선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의뢰로 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재위원회인데 선불당하고 판전은 결다리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를 위주로 하는 것 같은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나' 업체2

보완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어쨌든 조명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하나는 거기에 다니시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의 안전의 문제 때문에 조명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절이 돋보이기 위한 경관의 조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동등한 조명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명인지 아니면 경관을 위한 조명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요사채면 스님들이 주무시고 해야 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까지도 이렇게 야외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스님들이 어떻게 주무실지.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명에 대한 그레이드나 그리고 아까 000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냐, 문화재가 아니냐도 나누셔서 조명을 등급별로 설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나' 업체1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저희가 받은 도면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기존에 요사채였던 것을 현재는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변경해서 일반인들이 체험관으로 사용하는 위치로 바뀌었거든요.

○ 000 위원

저쪽 요사채도요? 아까 보니까 요사채가 두 군데 있던데요.

○ '나' 업체1

뒷부분, 이 부분이요?

○ 000 위원

아니요. 다음 페이지. 여기에 요사채 있고 저쪽에 요사채 있잖아요. 여기 종루 뒷부분에 요사채 하나 더 있잖아요. 신검당 뒤쪽에도 있고요.

○ '나' 업체1

잠시만요. 현재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요사채로 사용하지 않고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스님들께 요청하신 부분들에다가 조명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 '나' 업체2

저녁 9시에서 10시 되면 다 소등해서 주무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시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봉은사가 10시까지 야간개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원래 절은 7시 지나면 어두워야 하는데 10시까지 하니 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 절이 밤에 불이 왜 필요해요.

○ 000 위원장

스님들 보통 8시 되면 주무시는 것 같은데.

○ 000 위원

공은 다 끝나고 거의 7시부터. 조사 나가면 항상 7시부터 주무시죠. 8시면 다 소등하시고요.

○ '나' 업체2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도 주변에 계신 외국인이라든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밤에도 올라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특히나 여름에는 저녁에 많이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동선에만 조명 계획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전각과 전각 사이들은 기본적으로 조도만 밝히는 정도의 계획으로, 특히 경관이라고 해서 다른 뭔가를 과도하게 밝게 한다든지 특출하게 확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조명계획은 봉은사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000 위원장

사찰이다 보니까 단청으로 된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조명의 특정파장이 단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은 했나요?

○ '나' 업체2

저희가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광화문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덕수궁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올해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상대로. 거기에서 조도라든지 파장이 갔을 때 단청의 색상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했었고 그 시연을 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봉은사도 이 정도 단청이면 괜찮다고 판단해서 조명





계획을,

○ 000 위원장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는 없잖아요.

○ '나' 업체2

저희들 발표에는 아니고 기존에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 '나' 업체2

예, 없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밤에 등 있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셔서 부족한 게 뭐고 어느 부분은 보강해야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에 오른쪽 화장실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거기 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등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했으면 좋겠고 루는 지금 등이 다 있나요? 문들이요.

○ '나' 업체1

문이에요? 진여문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 000 위원

문, 입구. 진여문하고 법왕루.

○ '나' 업체2

아니요. 이쪽에도 지금 특별하게 조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000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를 해서 밤에 외국인들도 오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외국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거기를 메인 입구인데 거기는 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혀 등이 없고 주변에만 다 있고.

○ '나' 업체1

바깥에 보안등 정도만 지금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을 위하고 템플스테이하고 말씀하시는 데 목적은 그 안에 계신 분들, 왜 저것을 하는지 조금 더 해서 디자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등을 밑에다 놓고 하는 것은 다 좋으신데 유도등이라도 해서 사람들도 알게끔 그 절에 접근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든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서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없이 그냥 사람들 보이는 입장에서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절의 기능보다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나무에 하신 것 보여주세요.

○ '나' 업체1

수목 부분이요?

○ 000 위원

여기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사찰이 아니라 놀이하는 곳 아니면 공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밑에만 쪽 해 주실 것 같은데 저기까지도 뭘 자꾸... 밑에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에서는 저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나' 업체1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잘못하면 공원이 돼요.



- 000 위원  
수목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계속 야간에도...
  - 000 위원  
잠을 못 자죠.
  - 000 위원장  
수목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 000 위원  
바람에 움직이고 이러면 더 무서워 보일 것 같은데.
  - '나' 업체1  
조명 방식을 좀 더 찾아보고 운영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업체 퇴장 )
- 000 위원  
3억 6,000이랬나.
  - 000 위원장  
이건 자비로 하는가요?
  - 000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로 자비를 안 하죠.
  - 000 위원  
전통사찰 비용이,



- 000 과장  
아니요. 이걸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체부 쪽에서 종무 쪽 예산을 받아서.
- 000 위원장  
문체부에서 하는 거예요?
- 000 위원  
전통사찰위원회 그 비용 있잖아요.
- 000 위원  
저번에 저도 세종시 거 딱 3억 6,000이예요. 3억 6,000 사찰 하나에 줬습니다. 건물 새로 짓고. 요새 문체부 돈이 나옵니다. 건물 하나당 3억 6,000을 줄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이번에 봉은사로 왔네.
- 000 위원  
그건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 000 위원  
보통 짓는 데 사용해요.
- 000 위원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요. 라이트로 한 거는 처음 봤어요.
- 000 위원  
저는 심의하는 것에 여기는 좀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 000 위원  
나가기까지 하나요?
- 000 위원  
자문의견서를 내셔서요.
- 000 과장  
본인께서 지금 회피를 하신 거예요.
- 000 위원  
여태까지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자문 하셔도 그냥 하셨는데.
- 000 과장  
000 교수님은 오늘 건 중에서 긴급보수 건이 본인이 그냥 제척사유세요.  
동국대 건이기 때문에, 동국대 안에 있는 건물 건이라. 그 건만인데 이 건  
은 본인이 직접 사유가 아니신데 그냥 불편하셔서 회피하신 거예요.
- 000 위원장  
아마 여기 서류에 있으니까 불편하신 것 같아요.
- 000 위원  
봉은사가 보통 3억이나 얼마 나오면 화장실이나 이런 정비 비용으로 나가  
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 말씀대로 조명으로 받아버리니 여기저기  
등을 합쳐서 3억 6,000을 맞춘 것 같아요. 여기다 써야 하니까.
- 000 위원  
과도하게 설치하는 거죠.
- 000 위원  
지금 너무 과도하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문화재는 전혀, 솔직히 문화재를  
보여줘야 하는데 문화재는 디자인 보면 판전 사이트에 라이트가 보이는데  
거기는 설치도 안 하는 데를 그려오고 문화재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000 과장

그러면 문화재 부분에 대한 조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사찰에 맞게 조명을 적합하게 만드는 정도로 해서 약간 다음에 보시는 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우선 보류를 해놓고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

도면도 제대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 000 과장

전달해놓겠습니다.

○ 000 위원

봉은사 도면이 얼마나 많은데요.

○ 000 위원

내가 바로 전에 봉은사 판전 논문심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도면 다 있었어요. 내부 판전까지 도면이 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황당하네요.

○ 000 위원

안 찾아보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 000 위원

다른 도면 갖고 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심의할 때 금성건축사무소에서 이 도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 000 위원

봉은사는 금성에서 합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0/67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 000 과장

아마 그것을 공유를 안 해 준 건가 본데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건,

○ 000 위원장

아니, 사찰에 주라고 하면 줄 텐데.

○ 000 위원

안 물어본 거죠.

○ 000 위원

그럼요. 거기 관리에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다.

○ 000 과장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실도면에다가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리동 정영국 가옥입니다. 설명은 내용 다 아 니까 변경된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업체1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 계획은 원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원형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붉은색 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 약간 균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몰탈 바르고 페인트칠 해놓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몰탈을 긁어내서 벽돌을 노출시키는 방안하고, 아무래도 그건 0.5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탈 긁어내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붉은색 벽돌타일로 원형을 가져가는 두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클러 외부살수용 얘기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소화장치함은 기존에 외부에 있는 것을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 IOT 스마트화재감지기가 나오고 있어서,



○ 000 위원장

잠깐만요. 000 교수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할 텐데.

○ 000 주무관

지금 모시러 왔습니다.

○ '다' 업체1

진행할까요?

○ 000 위원장

예.

○ '다' 업체1

스마트화재감지기에 대한 검토를 추가했고요. 방염도로 도포하는 (안)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지금 외부살수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수조 용량인데요. 저수조 용량이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 20개 기준으로 해서 약 32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후면하고 마당 중간 여기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후면에 설치할 시 기존에 옹벽 높이라든지 문화재와 너무 인접해서 저수조를 넣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물탱크 용량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표현해놓기로는 펌프실 제외하고 물탱크실이 이 정도 용량이 되고 건물과 바닥에 동시에 설치했을 때는 약 3m 정도 그리고 이 점에서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석축 상부로 했을 때는 여기서 이격거리 포함하면 3,50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에서 2,700 정도가 하부로, 지하로 파고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정에 넣는 (안)을 검토했는데 사실 중정에는 여기에 지금 공원관리사무소가 마당 아래,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앙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재와 너무 인접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중앙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후면에 화계 석축이 없어지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후면에 공원 부분하고 저희가 공원과 높이가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 옹벽을 설치하고 여기에 넣는 것은 지하로 파고 내려가는 것보다 지상 위로 노출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외부에 서울시에서 비상소화장치 하나를 설치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에는 중정에 수전이 지금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지하 매설 소화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살수장비이고 평상시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 미관에 저해가 안 되는,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닥에 매설되는 형태의 소화함입니다. 그리고 IOT 화재감지기는 각 방에 추가가 돼서 24시간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건축주랑 소방서에 연락이 가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감지기를 적용했습니다. 화재 염려 때문에 목부재에 방염도료를 도포하고자 합니다. 이 방염도료는 목재에 불이 직접적으로 가했을 때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해 주는 도료이고요. 소방서와 정영국 가옥의 거리는 약 500m 정도 되고 실제 출동 시간은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5분 내로 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재감지하고 방염처리만으로도 충분히 소방차 출동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주는 외부스프링클러를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 여기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 이쪽 웅벽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후면 웅벽과 문화재 인접하는 이 부분과 여기서 펌프로 나오는 기단 외측부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물을 끌고 오는 외부 파이프를 설치한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문화재 기초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만약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 000 위원

여기 소화 수조실 32톤 이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보다 좀 더 규모가 적은 소화 수조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 업체1

이거는 저희가 소방기술사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임의설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소방법에 맞게 설치해야지, 소방서에서 전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설



치라고 해서 저수조 용량을 줄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건물 주변으로 결국에는 스프링클러 살수 장비가 전체가 되려면 최소 20곳 정도는 설치가 돼야 하고 보통 10개의 헤드가 있을 때 소화용량을 16톤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서 만약에 헤드가 추가되면 소화용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일단 이것을 손을 대면 이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 '다' 업체1

예. 그러니까 거의 최소 수량은 32톤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기술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아까 도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여기 지금 이 계단 타고 내려가면 여기 지하실에 우물이 있더라고요.

○ '다' 업체1

예, 있습니다.

○ 000 위원

그 우물이 지금 물이 나오나요?

○ '다' 업체1

우물은 지금 말라 있습니다.

○ 000 위원

그건 말라 있고요?

○ '다' 업체1

예. 지하 공간은 여기서 내려가서 지금 주방 하부 정도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34/67



○ 000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화계는 사실은 서울에 주택 중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화계인데 이것을 파서 만약에 물탱크를 설치할 하신다고 그러면 이 화계는 그대로 다시 쌓으실 생각인가요?

○ '다' 업체1

물탱크가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 000 위원

위로 올라되니까 화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 '다' 업체1

예. 화계가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 000 위원장

스프링클러가 수도로 직접 연결해서는 기능을 못합니까?

○ '다' 업체1

일반 상수도로 연결하는 스프링클러로는 안 되고요. 보통 산간지형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건물에도 소방차나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살수형 장치를 해서 소방차가 와서 보통 수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저수용량을 외부살수에서 연결하고 살수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는 순간 진입 못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수전을 안 두고 소방차에 연결해서 쓰는 살수장비는 사실 초기진압용으로써는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아니요. 제 질문은 스프링클러는 항상 저수조가 있어야해요?

○ '다' 업체1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상수도로는 안 된다 이거죠?

○ '다' 업체1

예. 전체를 쓰기에는 수압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저수조를 두더라도 펌프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지상에 두면 겨울철에 상당히 온도 낮아질 때 어떻게 처리해요?

○ '다' 업체1

저수조 자체는 골조로 세우고요. 안에 수조통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조와 이격거리를 보통, 지금 소방법에서는 600 정도 이격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수조가 폭이 작다 보니까 밑으로 길어지고 옆으로 넓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수조가 적합한 제품이 없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수조 자체도 제작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몇 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 '다' 업체1

지금 스프링클러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는 위원님들 의견받아서 이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수조 관련해서 1(안)부터 3(안)까지 가지고 오셨나요?

○ '다' 업체1

저수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입니다. 1(안)은 후면에 설치하는 (안)이고요. 2(안)은 중정에 설치하는 (안)인데 사실 중정에 설치하는 (안)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1(안)이 적당하다 이거죠?



○ '다' 업체1

예. 위치는 1(안)이 적합한 상황인데 1(안)에서도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000 위원

담장 좀 보여주시죠.

○ '다' 업체1

예.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마당 담장이 지금,

○ 000 위원

여기는 지금 담장을 해놓은 거죠?

○ '다' 업체1

예. 담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이것을 쓰는 거 아닌가요?

○ '다' 업체1

이 위에 있는 담장의 안쪽 모습입니다.

○ 000 위원

여기도 아마 시멘트로 한 거고 이걸 빨간색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 '다' 업체1

이쪽 담장은 이 부분의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밖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는 마당 안쪽에서,

○ 000 위원

거기도 그렇게 본 거잖아요.



○ '다' 업체1

여기에는 지금 대나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본 사진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었고

○ '다' 업체1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이건 다른 것 같은 느낌이고.

○ '다' 업체1

그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가 안 좋으시니까 미장을 예전에 집주인분이 해서. 그래서 몰탈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 000 위원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넣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새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파는 거. 뒤에 들어가면 KS하고 광 찍어서.

○ '다' 업체1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 하는데. 긁어내는 것도 잘하는 분들 많아요.

○ '다' 업체1

의견 주시면 저희가 몰탈 제거해서 원 모습으로 만드는 쪽으로 공사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옛날 경복궁 옆에 있는 거기 보면 짝 되어 있죠? 그것도 되어 있는 것 뜯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 000 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 000 위원

저 하나만 여쭙볼게요. 마당에 저수조를 만들기 힘들다는 이유가 뭐였죠? 더 깊이 파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단까지 영향 안 주고,

○ '다' 업체1

예. 이쪽에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작업동선이 이쪽이 길이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저희 대지경계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마당을 파게 되면 크기가 저희가 최소 깊이로 생각해보면,

○ 000 위원

3,000을 낮게 되면 좀 더 깊이 파면 화계 쪽은 3,600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파면 이게 줄잖아요.

○ '다' 업체1

그렇기는 합니다.

○ 000 위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 '다' 업체1

마당에 하면 더 작게 하면 더 깊게 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는 지금 장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당 문화재의 기단 영역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하면 한 5m, 6m를 파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실제로 여기 앞에 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전이 지금 주방 쪽하고 화장실 쪽하고



아래로 갔을 텐데, 그러면 배관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손대게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중정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000 위원

중정에 해야 양쪽 짝 나가고 수전이 있으니까 수전 위로 파이프 지나면 되고.

○ 000 위원장

안 되는 건 아니고 공사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 ‘다’ 업체1

사실상 여기에 수전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공사 여건이 여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시면 적용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안)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의견을 주면 판단하겠다 이런 자서는 좀...

○ ‘다’ 업체1

저희가 1(안)과 2(안)으로 제시를 드리는데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서 결정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을 가져와서 여기서 승인하는 방향이 이 회의의 시스템인데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오고 ‘결정해 주세요.’ 하면, 여기가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 ‘다’ 업체1

사실상 저희가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정영국 가옥의 여유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사실상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이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스프링클러 외부살수 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를 해서





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다’ 업체 퇴장)

○ 000 위원

위원님, 송례문 때 이후로 이쪽은 완전히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송례문 담당하셨잖아요. 이게 방염만 해도 이거를 막나요?

○ 000 위원장

사실 지금 송례문 하면서 그게 워낙 이슈가 돼서 방염은 보니까 일본에 물어봤어요. 일본은 문화재 말고도 목조건축물이 많으니까. 일본문화재청에 물어보니까 일본은 문화재청 내에 문화재부가 있어요. 조직이 작습니다. 저희하고 교류가 있어서 매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일본은 문화재에 기본적으로 방염제를 안 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득보다 실이 많대요. 대부분 백화현상이 끼거나 그래서 미관을 해치거나 아니면 철물을 다 녹슬게 해요, 대부분.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안 했는데 외부의 압력이 심해요. 이거 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계속 ‘왜 안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마침 어떤 사찰에 불이 났는데 방염제 때문에 안 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시끄러웠어요.

사실 목재라는 것은 발화온도가 500도 이상입니다. 굉장히 불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건축법상 난연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목재가 난연제입니다.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불쏘시개로 한참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염제 자체가 여기 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받았다는 방염제가. 이 방염제를 문화재청에서는 못 쓰게 했거든요. 부작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문화재연구소에서 민간업체하고 같이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을 때까지 뚜렷한 결론을 못 냈어요. 계속 뭔가 나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화재에 대한, 목조건축물에서 사니까. 문화재도 많이 있고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쿨하게 안 쓰대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난리니까. 그



리고 업 하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왜 안 하느냐.’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까지는 거의 안 썼어요. 안 썼는데,

○ 000 위원

결국 스프링클러로 가야 하나.

○ 000 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품이 2013년도에 승인된 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는 그때 방재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많이 모셨죠. 화재 관련 전문가, 방범전문가 관련해서 많이 모셔서 그러니까 불난 건물이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넣었어요. 지붕에 방염천까지 깔았어요. 저는 깔기 싫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방염천도 깔고 그런데 방염제는 도포를 안 했습니다. 방염제는 도포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글썄요. 아마 발표자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자기는 아마 중정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주한테 권하기가 꺼끄러운 것 같네요, 보니까. 뒤에 넣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 000 위원

그리고 사례도 찾아보니까요. 2023년도 올해 세워진 건물이네요. 새로 건물 만들면서 한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새로 지으면서. 사례도 안 돼요.

○ 000 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나요? 1(안), 2(안) 가져와서 ‘골라주십시오.’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골라주고 그러나요?

○ 000 위원

그렇진 않지만 논의의 범주를 넓히는 역할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번 의결 내용 중에 적극적 소화설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그랬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계획자가 ‘나 이렇게 검토했는데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이미는 것 같기는 하거



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주택 규모의 이런 문화재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초에 주택이었다가 지금 어쨌든 근린생활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서 화기를 다루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한 소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이거는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기획자는 전혀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다음에 다시 와도 똑같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000 위원장

가정집에 스프링클러 하는 건 거의 없죠?

○ 000 위원

없었던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우리 살림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옥으로 하는 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없죠?

○ 000 위원

예.

○ 000 위원

소화기 위치 정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불 다루는 데는,

○ 000 과장

감지기를 놓고 확산소화기 놓고 이렇게 하죠.

○ 000 위원

음식 만드는 데는 전기 쓴다고 하지만 혹시나 세서 불이 나면 문화재하고 사이를 무언가를 불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기만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 000 위원장

송례문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저장고 수조가 없거든요. 수조가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수도 직결로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저장고 이야기를 하니까.

○ 000 과장

송례문은 소방차가 외부 연결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따로 저수조 없어요.

○ 000 위원장

아니, 우선 초기진압을 해야 하니까 소방차 온다고 해도 몇 분이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불 붙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연기가 나거나 하면 이렇게 확 끌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수도 직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겨울에 동파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조를 들이대니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 000 위원

약간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 같이 들려서요.

○ 000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 직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례문도 그렇고 한 것 같고.

○ 000 주무관

수도 직결은 소방법에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 000 위원장

가능하지 않아요?

○ 000 주무관

예. 수도 직결의 어떤 일반적인 수압이 있는데 소방에서 원하는 수압이 있거든요. 그건 무조건 기계실, 펌프실을 뒤야 합니다.



- 000 위원장  
펌프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 000 주무관  
예. 아마 펌프실을 뒀을 겁니다.
- 000 위원장  
어디든지 승례문 화재 나고 궁에 있는 중요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디도 저런 장치를 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걸 가져오니까.
- 000 위원  
소방 관련된 서류를 들이미니 이거 어떻게 해. 의견서를.
- 000 위원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라고 그러면 '니들이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 000 위원장  
삼세판인데.
- 000 위원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주방만 하고 스프링클러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 부분만 넘어가는 걸 늦추게 하든가 막아서, 그런데 가능한가?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랑 소화기 배치할 계획이랑 그 정도.
- 000 위원  
소화기로 바로 할 수 있게끔.



- 000 위원  
32톤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지금 가져온 게 과도해요.
- 000 위원  
우리가 저거 하라고,
- 000 위원  
아니, 설명에는 재검토라고만 쓰여 있지, 누가 무슨 32톤을 해오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네.
- 000 위원  
아니야. 확실히 자기가 과하게 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게.
- 000 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급해요.
- 000 위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 거를 쓸 수 없잖아요. 쓰면 안 되잖아요. 현지자문을 해서 끝내시면 안 되나요? 현지자문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끝내는 것으로.
- 000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건부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주셨던 것 중에 주방,
- 000 위원  
그렇죠. 소방하시는 분 한 분.
- 000 과장



소방하고 문화재 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해서 현지자문 플러스 해서 주방 부분 소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의 조건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만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 업체 입장)

○ '라' 업체1

안녕하세요.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건축2팀장 입니다.

원구단 정문 주변 철제펜스 철거 관련해서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개요는 문화재 자료 제53호 2011년에 지정되었고요. 원구단 정문입니다. 소재지는 서울광장 동남 측에 위치하고 있고 소유는 서울특별시, 관리는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대상은 원구단 정문 1개동 그리고 토지 2필지입니다. 보호구역지정대상은 토지 3필지로 총 666.2㎡입니다. 최근 10년간 보수이력을 보면 원구단 정문 마름돌과 전돌 및 마당 판석의 교란 현상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심의사항 사업명입니다. 원구단 정문 주변 철제펜스 철거고 원구단 정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펜스를 철거하여 고립된 원구단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원구단의 단절된 동선 개선을 통해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서울광장과 연계해서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부시장, 시장 보고를 드린 사안이고 사업 내용은 철제펜스 철거, 경계석 교체 공사, CCTV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소화기 재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포함해서 사업비는 3,62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현황사진입니다. 원구단 정문은 현재 철제펜스로 막혀 있고 후문도 철제펜스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문 옆길하고 후면에 옹벽 등의 길을 통해서 환구단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층부 일대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한 저층부 주변 지역에 공공성 강화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장숲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이와 연계해서 덕수궁과 환구단 쪽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개방공간이 되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구단 정문 주변 펜스는 2011년 승례문 방화 사건 이후에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펜스로 인해 인지성 및 접근성이 결여되어서 원구단 정문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유산인 환구단의 존재를 시민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47/67



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화해설사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환구단 존재 여부를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정문에서 만나고자 했을 때 시민들이 장소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펜스 철거 이후에 10년이 경과해서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소실되어서 3년의 복원과정을 거친 송례문도 2021년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정문과 후문을 오갈 수 있는 송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구단 정문 개방으로 고립된 환구단의 접근성을 높여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이 경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펜스 철거공사의 현재 배치도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전면부에 40m, 후면부에 20m, 높이 1.2m의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배치도입니다. 철제펜스 1.2m는 철거를 하고 총 60m를 철거하고 경계석도 같이 60m를 철거하고 경계석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철제펜스 철거 후에 경계석은 무단차 경계석으로 재설치하고자 계획했습니다. 화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CCTV 2대와 환구단 관리처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환구단 정문 쪽에 신설 CCTV를 2개를 설치하고 기존 관리처소에 안전경비원을 통해서 환구단과 월구단 정문을 확대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CCTV는 처마 안쪽으로 문화재 보호 및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화소를 확보한 CCTV를 처마 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화재와 관련해서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환구단 정문은 개방된 문의 형태로 연기나 열감지기 적응성이 좀 떨어져 불꽃감지기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불꽃감지기 2개를 CCTV와 다른 처마 하부에 2개소를 설치하고 이는 90도에서 180도 정도가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화수신기 1개를 기존 환구단 관리처소와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화기는 현재 3개 문에 여러 대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펜스 바깥쪽으로 2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행동선과 개방에 따라서 펜스가 철거되는 것을 고려해서 재배치해서 경관을 해치지도 않고 제대로 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다시 보시면 현재 되어 있는 펜스 때문에 시민들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안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철거해서 이런 지장물들이 간혹 펜스 쪽으로 열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펜스를 철거해서 이 앞쪽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환구





단을 잘 인지하고 건널목이 또 바로 앞에 있어서 서울광장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오시는 보행자분들도 안쪽 문화재를 잘 감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 000 위원

펜스 없으니까 좋네요.

○ 공공건축2팀장

감사합니다.

○ 000 위원

건너편 옹벽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예요?

○ 공공건축2팀장

뒤쪽 옹벽 소유권이요?

○ 000 위원

예.

○ 공공건축2팀장

환구단 옹벽입니다.

○ 000 위원

환구단 옹벽인데 지금 그것을,

○ 공공건축2팀장

지하에는 조선호텔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49/67



그렇지. 조선히텔 소유쥬?

○ 공공건축2팀장

예. 이 환구단 부지는 국공유지고 이 사이 공간이 사유지가 같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그렇구나. 안쪽 옹벽까지도 같이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 000 위원

저도 어제 가봤는데요. 펜스 없는 건 좋은데 저거 자체가 환구단으로 보이지 않아요. 옹벽의 계단 자체가 정비를 잘못된 것 같아요. 저것을 오픈해도 인식 못하는 건 마찬가지로 거고 다만 접근, 그러니까 가서 보고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환구단 표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애들 보면 설명해도 관심도 없어요.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이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데는 다 호텔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 공공건축2팀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옹벽에 대해서 추후에는 같이 고민하려고 지금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어디서 오셨어요?

○ '라' 업체1

저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팀장입니다.

○ 000 위원

아, 공무원이시구나.

○ '라' 업체1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0/67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예, 공무원입니다.

○ 000 위원

깜짝이야. 항상 설계사무소에서 나오셨다가 갑자기 공무원이 나오셨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이네요.

○ 공공건축2팀장

저희가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여는 것도 좁고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시민분들이 살짝 앉으실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변경하기보다는 시민분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쪽이 정면이 축이 낮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더 좋을 텐데 축도 살짝 틀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면 예전 모습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000 위원

문 자체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아닌 거죠?

○ 000 위원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 공공건축2팀장

예, 맞습니다. 원래 위치는 조선히otel 쪽 지금 차량이 들어가는 그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어쩔 수는 없는데 너무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담벼락처럼 보이니까. 저기 밤에 문 닫은 다음에 접근하면 밤에는 항상 열려있나요?

○ 공공건축2팀장

문은 지금은 이렇게 펜스가 있으니까 열어놨었는데 밤이 되면 닫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  
그러면 원래 저렇게 돌아갔잖아요. 저쪽으로는 막아놓나요? 아니면 저렇게 해놓는 건가요?
- 공공건축2팀장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밤에도 갈 수 있으니까.
- 000 위원장  
그냥 뺄 뚫려있는 거죠. 큰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가 답답하더라고요.
- 000 위원  
문도 문화재인가요?
- 000 위원  
아마 그럴 걸요.
- 000 위원  
문도 문화재에 들어가는 거죠?
- 중구청 주무관  
예.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 공공건축2팀장  
문화재자료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접근해서 또 이상한 짓 하면...



- 공공건축2팀장  
관리처소가 환구단관리처소가 있는데.
- 000 위원  
소화기.
- 000 위원  
소화기? 저기는 아무도 없어요. 승례문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낮이나 다른  
때나 거기 문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승례문은 좀 오픈된 게 가능한데 여  
기는...
- 중구청 주무관  
상부에 보시면 환구단 바로 옆에 안전경비원 근무하시는 경비초소가 있어  
요.
- 000 위원  
어디요?
- 중구청 주무관  
계단 위로 올라가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 공공건축2팀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000 위원  
굉장히 먼데요.
- 공공건축2팀장  
또 이 광장하고 보행로 쪽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  
시고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 000 위원



접근하면 삐 소리 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안 되겠지. 그건 옛날 방식이지.

○ 000 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퇴장하겠습니다.

○ 공공건축2팀장

예, 감사합니다.

(‘라’ 업체 퇴장)

○ 000 위원

예전에는 가까이 가면 삐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 000 위원장

이건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 접수하겠습니다.

○ 000 과장

가결하겠습니다.

○ 000 과장

1번 성북동 하겠습니다.

○ '마' 업체1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이종석 별장 보수공사 설계용역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대상 문화재는 성북동에 위치한 이종석 별장으로 1977년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덕수교회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성되며 현재 안채 지붕에 기와 일부가 이완되고 누마루 정면 하인방이 파손되었고 마루 귀틀 및 청판이 이완된 상황입니다. 그밖에 안채와 행랑채 방 내부 도배와 장판이 퇴락하였고 외부 목재면으로는 열화, 곰팡이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금년 3월에 착수하였고 7월에 현장자문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의 마무리 후에는 연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5,200만 원으로 설계비는 2,700만 원, 감리비는 600, 공사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건물의 수리 기록을 살펴보면 폐쇄가옥대장에서는 1948년 신축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1930년 사진과 같이 이전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화보고서에서는 1900년대 건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 대림산업에서 소유하고 있다 1985년 덕수교회에서 매입하여 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지붕가구를 해체하고 후가구를 철거하는 비교적 큰 보수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2019년 행랑채 기와고르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별장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채 지붕 현황을 보면 부분적으로 수키와골이 이완되고 와구토가 탈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채 지붕의 경우 2004년 이후 보수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육안 확인 시에 비교적 양호한 형태였고 건물 내부로 누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공사의 주요 수리범위인 안채 누마루 정면에 위치한 머름 하인방 파손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D 스캔을 통해 기둥 기울기 변위를 확인한 결과 기둥 상부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위각은 1에서 29mm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상 위치가 여기인데요. 지금 누마루 정면에 있는 이 부분에 하인방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 하인방의 주칸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둥 주칸이 11자 정도, 3,375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살림집의 건물의 주칸거리로써는 조금 큰 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하인방 부분의 파손 부분인데요. 이 건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이 안채 누마루 진입부 방향의 추녀, 지금 보니까 진입부가 이쪽 방향인데요. 추녀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면에서 볼 때 좌우처마가 비대칭적인 특징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건물 기둥이 변위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목수가 의장적으로 진입부의 처마부를 높여서 돋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특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초석 상단이라든지 돌이 나머지 부분들의 왕찌 부분이나 그런 레벨들을 확인한 결과 유사 범위값 안에서 레벨이 형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처마만 이렇게 높여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면 머



름 하인방 파손 부위인데요. 스캔상으로 살펴볼 때 처짐이라든지 배부름이 한 치 내로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육안으로 보실 때도 깨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름대 규격을 살펴보시면 머름대 춤이 70에다가 높이가 705로 상대적으로 세장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사 규모의 한옥의 건물에서의 누마루의 비교사례를 살펴보면 주칸의 범위는 8자에서 이중석 별장이 11자 정도로 가장 큰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 9자, 10자 내외에 있는 주칸 범위에서는 논산에 명재고택이나 매산고택 같은 경우를 보면 뒤에 기둥이 받쳐져 있는, 보강재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중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채 대청의 누마루 부분인데요. 기틀 및 청판 부재가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고 뒤틀려 있어서 부재 간 이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임에 따라서 대청 외부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마루 하단으로 해서 난방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마루에 영향을 미쳐서 부재의 노후화 뒤틀림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등천장으로 구성도 안채 천장의 사진인데요. 미장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미장 균열이나 탈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건물의 변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변위가 있어서 탈락되었다기보다는 노후화로 인해서 접착력이 약화됐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특히 여기에 누마루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배현황인데요. 안채와 행랑채 내부 장판이랑 벽지가 퇴락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는 하나, 관리가 원활히 되지 못해서 목재면에 열화나 변색 등의 현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 및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채 지붕 공사의 경우 형태가 양호한 마루기와는 제외한 바닥기와 기와 고르기를 계획했습니다.

기와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교체 수량은 10% 내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붕 내부 가구의 경우 시공 중 상태를 확인하며 관계 자문을 거쳐서 공사 범위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둘째, 안채 정면 누마루 머름대의 경우 머름대 중간에 기둥을 보강한 유사 사례도 확인되지만 현상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서 신재 교체 후 부재의 너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재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현황은 왼쪽과 같은데 춤을 한 치 정도 크게 하여서 계획은 110으로 잡아서 계획했습니다. 그밖에 안채 대청 및 누마루의 경우 이와된 마루널이나 귀틀 등을 전체적으로 해체하고 재설치 하되, 상태가 양호한 마루청판의 최대한 재사용하고 이격이 확인된 부분에서는 메움재로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기타 공사로 안채 연등천장 탈락부 미장 및 도배공사, 외부면 단청 공사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는데, 공사 예산 확보 범위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으로는 보수도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현황과 계획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살펴보고 궁금하신 사항 말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리기록을 살펴보면 2001년 해서 2004년까지 공사 기록이 있고요. 문서화된 기록은 없어서 지금 저희 안채 공사하기 전 20년 정도 터울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소소하게 유지보수를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크게 건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이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고요. 다만, 정면에 누마루에 있는 마루귀틀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크랙이 크게 나가있고 처짐이 보여서 그 부분은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 000 위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안채 누마루에 지금 머름 부분에 크랙이 가서 그것을 두꺼운 부재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 '마' 업체1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해체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실 건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제강점기 사진하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입면이 바뀌었거든요. 이 입면이 바뀐 시점을 언제라고 보시는지 그 자료를 찾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마' 업체1

우선 머름대 부분 해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



기는 하지만 여기가 머름의 하인방 수장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석이나 기둥 같은 주요 가구 부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곳과 연결이 되는 마루와 그리고 머름, 창호까지는 해체를 하는 범위로 잡아놨고요.

○ 000 위원

창호까지도요?

○ '마' 업체1

예. 창호 위애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체했다가 다시 재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체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가에서 사는 살림집 건물에 가깝기 때문에 수리 기록이라든지 공사 기록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예상하는 그 변화는, 현재 모습으로 바뀐 부분은 2000년대 들어서 그 당시에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현재 보이는 창이, 대청에 창이 생긴 시기와 진입부가 지금 원래는 대청으로 진입하는 방식에서 창이 생기면서 측면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문이 생긴 시기는 이게 2003년 수리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때의 모습이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속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사실 근대기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금 이쪽은 너무 진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무색무치의 약간 이상한 한옥으로 입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쪽 부분에 머름을 교체를 하면서 창호까지 건드린다면... 그런데 저쪽만 원형으로 복원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네요.

○ '마' 업체1

지금 교회에서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가 잘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 000 위원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 '마' 업체1

내부의 공간구성은 화장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생활설비 부역이나 공간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건물의 입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사소한 건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사실은 이중석 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면구성을 보더라도, 입면구성을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채의 입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옆에 작은 한옥이 덧붙여 있던데 본채 정도로 명칭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문화재 설명도 찾아봤더니 거기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안내판에는 본채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마' 업체1

알겠습니다.

○ 000 위원

8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마' 업체1

저희가 작은 건물이지만 조사를 하려고 스캔을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 구조적 원재는 파악해보려고 건물의 변이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사진을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붕가구가 추녀 뒤뿌리 하는 것들이 철물로 다 \*\*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변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추녀의 레벨이 비대칭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 건물에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여기가 정문 입구에서 보는 그 뷰거든요. 여기를 더 높은 것들은 그 당시 목수의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저쪽은 아니고?



○ '마' 업체1

예. 반대쪽은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이쪽에 추녀를 잘라서 형태를 보여드린 거고요. 한 자 정도 레벨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부랑 여기에 관계들이 다 연동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하부의 구조적 원인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돌의 레벨이나 그런 것들이 배면이나 다 확인을 해봐도 생각보다 건물 자체는 튼튼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거 차가 얼마나 되나. 여기서 여기. 그것 빠지고 이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 '마' 업체1

여기 끝단이거든요.

○ 000 위원

거기서 지금 하셨던 방식도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요새 많이 쓰기는 하지만 옛날에 했던 것도 더 쓰기가 편해요.

○ '마' 업체1

표시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

여기랑 하는 거랑 이것 지금 여기 점(.) 얼마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건 빠져 있고.

○ '마' 업체1

점(.) 얼마예요?

○ 000 위원

점(.)도 있어야 하고 mm도 뒤에 써야죠.



- '마' 업체1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 000 위원  
전부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옛날 저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여기요. 이렇게 파손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닌 것 같아요.
- '마' 업체1  
시대의 어떤 계속적인 것에 더 나빠지지는 않고 계속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 000 위원  
그릴 수 있죠.
- 000 위원  
5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화가 2003년에 생긴 거예요?
- '마' 업체1  
예. 자료로 볼 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자료로 볼 때 2003년에 바뀌었다고요?
- 000 위원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985년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 '마' 업체1  
1985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 000 위원  
사진을 더 찾아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더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궁금해서.



○ 000 위원

그냥 제가 학문적으로 궁금해서요. 1985년일 수도 있겠네요.

○ '마' 업체1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당시의 자료는 확보를 해놨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저기가 텃마루일까요? 저기를 없애고 저쪽을 낮춰서 마치 현관 처럼 사용하게 된 게 1985년일지 2003년일지 궁금한데요.

○ '마' 업체1

그때 담당했었던 분의 얘기로는 이때 대대적인 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000 위원

2003년이다?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옛날 모습이 멋있네요.

○ 000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격조 있고 멋있는데.

○ 000 위원장

형판도 여러 개 달려있고 전형적인 그런 집을 약간,

○ 000 위원

무색무취로.

○ 000 위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62/67



○ 000 위원  
안타깝네요.

○ 000 위원장  
교회 연수원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 '마' 업체1  
예.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폐쇄적으로 만들었네.

○ 000 위원  
근대기에 안채 쪽마루를 뒀죠. 쪽마루를 뒤서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 000 위원장  
더 의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업체 퇴장)

○ 000 위원장  
어떻습니까?

○ 000 위원  
000 교수님, 아까 누마루에 머름이 크랙이 간 것은 그냥 안정화되어서 그 대로 유지가 된 것처럼 보신다고 하신 근거는 뭔가요?

○ 000 위원  
이게 사진이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저렇게 있었어요.

○ 000 위원장  
가보셨어요?



○ 000 위원

그 아래 가면 커피숍이 있고 맛있는 데가 많아서 구경을 갔는데.

○ 000 위원

크랙 갔어도 안정화될 수도 있네. 가로로 크랙 간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잖아.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진짜 다른 누마루랑 비교했을 때 사실 기둥 간격이 넓고 기둥이 되게 작고 하니까 저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굳이 그러면 저것은 안 건드려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 000 위원

동바리기둥으로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000 위원장

11자로 넓히는 한데 다른 곳보다 춤이 높잖아요, 부재가.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

춤이 커요.

○ 000 위원장

춤이 훨씬 높은데요.

○ 000 위원

사실은 안에 다 바뀌어서요.

○ 000 위원

다른 것 건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건드리면 공사가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

현장지도. 왜냐면 안정화된 것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 000 위원장

그러면 현장 한번 보는 것으로.

○ 000 과장

그러시죠. 이것은 우선 조건부로 해놓고 현장을 보고 저기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마지막입니다.

○ 여1

안녕하세요. 긴급보수 담당주무관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유형문화재 20호 경희궁 송정전의 지붕 기와 여기 부분이 떨어졌거든요. 토수가 떨어져서 10월 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0월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18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안건 올리려고 바로 000 위원님과 현장조사를 나가봤거든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어요. 현장을 보게 되니까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기와가 떨어진 현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탈락 전에 보면 여기 끄트머리가 있었는데 애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현장조사 하니까 이 떨어진 부분 토수만 새로 만들어서 여기 사례 부분을 있는 방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검토했구요. 신청 자체는 1,540만 원에 했는데 현장 나가 보니까 거의 근접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해서 검토된 건입니다.

○ 000 위원

토수 하나 가는데 1,500만 원이나 들어요?

○ 여1

여기 견적을 보면 그것을 계속 붙이고 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더라고요.



○ 000 위원

돈은 내가 모르죠. 비계를 설치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토수 안에 나무가 부러졌나요?

○ 000 위원

나무가 썩었습니다.

○ 000 위원장

물이 들어갔구나.

○ 000 위원

사실 저 위에 것만 살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썩어서 부러져서 떨어질 때 주변에 기와랑 같이 떨어졌고요.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밤중에 떨어져서 피해는 없는데요. 위험한데, 이것은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승정전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중심포식이더라고요. 다포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저런 일이 또 없으시라는 보장이 없어서 저기는 적지 않았는데 뭘 계측하고 이런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은 권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만약에 다시 끼우면 거기 썩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끼우는 건가요?

○ 000 위원

잘라서 다시 붙이는.

○ 000 위원장

아마 철심을 박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 000 위원

사래는 많이 썩었어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66/67



○ 000 위원

그건 올라가서 보지는 못해서 밑의 것을 보니까 썩은 것 같아요. 재가 썩어서 떨어진 부재거든요.

○ 000 위원장

사래에 못을 박잖아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게 환기가 안 되니까 끄트머리만 썩은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그래요.

○ 여1

그래서 방식 전체를 보면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사래 마구리 할렬이 파손으로 토수가 떨어져 파손되었으므로 거기 부분은 신재로 그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거기를 제작해서 안전하게 안으로 끼워서 고정 설치하는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 부분은 힘 받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 000 위원

150만 원인데 1,500 드네요. 보니까 토수비용은 150이예요. 10배 드네요.

○ 000 위원장

비계 설치하고 그런 거죠.

○ 000 위원

그렇죠. 비계 설치하고 인건비 하나까, 그렇죠?

○ 000 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냥 수리하는 것으로 해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0921/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67/67

